

강단과 현장, 연구와 비평

— <올해의 문체소설>을 중심으로

노 태 훈*

요약

한국현대소설학회는 1992년 11월 창립되어 1993년 12월 학술지 <현대소설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 『우리 시대의 문체소설』이라는 앤솔로지를 간행한 바 있다. 이 시리즈는 『올해의 문체소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매년 문예지에 발표된 한국소설 중 단편 작품들을 검토하여 추천, 소개할 만한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도 발간되고 있다. 현대문학 분과 내에서 학술 단체의 이러한 행보는 유사한 경우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문학사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본고는 『올해의 문체소설』 선집의 발간 경위와 그 흐름, 그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기획이 지니고 있는 한국 현대문학 연구/비평 내의 미묘하고도 오래된 갈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흔히 '강단 비평'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져 왔던 대학 소속 연구자 중심의 문학적 담론 형성은 한국 현대문학이 분과 학문으로 정립되던 20세기 중반부터 논쟁적인 지점이었다. 그것은 당대 문학 현장에서 생산되는 작품, 작가를 어떤 형태로든 다루지 않을 수 없는 현대문학 분과의 학문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올해의 문체소설』은 지속성을 가진 학술단체와 대학이라는 제도적 기반 아래에서 여타의 문학 앤솔로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과 견고함을 갖고 자유로운 문학적 선택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문학 연구가 의식할 수밖에 없는 문학적 계보에 대한 강박 혹은 정전의 형성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의미 있는 기획을 장기간 이어올 수 있었다. 본고는 『올해의 문체소설』이 갖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발전적으로 이 작업이 지속성을 갖고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주제어: 한국현대소설학회, 올해의 문제소설, 연구, 비평, 강단, 대학, 현장

목차

1. 들어가며: 출발과 갈등
 2. 문학상이라는 제도와 문학 앤솔로지
 3. 『올해의 문제소설』 기획 의도와 선정의 방식
 4. 나가며: 의미와 제언
- 〈부록〉: 『올해의 문제소설』 연혁 및 선정 작품

1. 들어가며: 출발과 갈등

1990년대 한국사회의 ‘호황’ 국면에서 출판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형 베스트셀러의 등장뿐만 아니라 서점가의 판매 증가, 인쇄 업체의 활발 등 출판 업계는 거의 과열에 가까운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¹⁾ 출판 특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학계 역시 다양한 시도를 도모하기에 긍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문학 잡지의 발행(창간), 단행본 출간 증대로 이어졌다. 특히 각종 문학상의 신설은 그러한 호황의 산물이기도 했다.

언론사의 신춘문예와 기성의 문학상, 즉 이상·동인·현대 등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리던 제도가 공고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90년대에 조금씩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그 출판 호황의 결과물이었다. 주요 문예지와 출판사는 앞다투어 공모전과 문학상을 신설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목표와 더불어 ‘책’을 만들기 위한 일환이기도 했다. 문학상 수상작 출간 혹은 작품 선집 형

1) 「출판사-대형서점 「마진율 戰爭」, 《조선일보》, 1990.03.26; 「종이業體 세무조사」, 《경향신문》, 1990.05.23.

태의 출판은 늘어난 독자 대중에 소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판 호황이 학술 단체의 확장과 결합한 사례로 『올해의 문제소설』을 들 수 있겠다.²⁾ 주지하듯 이른바 ‘학진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연구 성과의 평가 척도가 학술지 논문으로 일원화되면서 현대문학 분과의 당대 문학 현장과의 유리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매우 다양한 학술 단체의 조직과 국가 연구 제도의 지원 등에 따라 기존의 관습적 학문 연구 구조가 개선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체로 1990년대를 전후해 한국 학술계가 계량주의적 기준에 편입되면서 학술논문이 ‘양산’되고 글쓰기 형식이 ‘논문형’으로 고정되는 등 폐해가 분명했다. 나아가 한국연구재단 체제로 그것이 공고화되어 이어지면서 학술계 전체가 국가 지원 체계에 종속되고 학문후속세대의 논문 생산 ‘노동’을 가중시키며 연구의 ‘서열화’를 정립시켰다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한국현대소설학회는 1992년 11월 창립되어 1993년 12월 학술지 《현대소설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이라는 앤솔로지를 간행한 바 있다. 이후 30년을 훌쩍 넘기면서 학술지를 100호까지 발간하기에 이르렀는데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학회에서 간행하기 시작한 ‘문제소설’ 시리즈 역시 해를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4년과 1995년에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던 이 선집은 현재 『올해의 문제소설』로 매해 그 발간

2) 1990년대 하버마스에 대한 이상열기 고조와 급격한 쇠퇴현상을 수용집단의 형성과 해체 현상을 통해 규명한 이시운의 논의를 참고하면 90년대 한국의 인문사회과학장은 학술적 공동체와 장(field)이 형성되지 못한 채로 산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그것이 상징투쟁의 효과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을 때 “적대적 협력자 공동체”를 구축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게 되는데(이시운, 『하버마스 스캔들—화려한 실패의 지식사회학』, 파이돈, 2022, 9-45면 참조.) 한국 현대문학 연구 분과에서 고민했던 지점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 당대 문학에 대한 비평적 접근과 문학에 대한 일반 연구는 학진 체제 하에서 ‘분리’를 택한 경우가 많았다.

을 지속하고 있다. 현대문학 분과 내에서 학술 단체의 이러한 행보는 유사한 경우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문학사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본고는 『올해의 문체소설』 선집의 발간 경위와 그 흐름, 그리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기획이 지니고 있는 한국 현대문학 연구/비평 내의 미묘하고도 오래된 갈등을 가시화하려 한다. 흔히 ‘강단 비평’이라는 용어로 일컬어져 왔던 대학 소속 연구자 중심의 문학적 담론 형성은 한국 현대문학이 분과 학문으로 정립되던 20세기 중반부터 논쟁적인 지점이었다. 당대 문학 현장에서 생산되는 작품, 작가를 어떤 형태로든 다루지 않을 수 없는 현대문학 분과의 학문적 특성상 이러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현대문학이라는 ‘신생’ 분과를 대학 학과 체제 내에서의 세부 전공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역사화’가 긴요한 작업이었고 당대 문학에 대한 비평적 작업은 역사의 ‘바깥’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요컨대 학문적 정립이 이루어지던 초창기, 즉 1960년대 이후 현대문학 분과의 선택은 비평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당대 문학에 대한 비평적 개입은 새로운 문예지와 비평 그룹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것은 대학의 학문적 연구와는 별개로 진행되었다. 《창작과비평》이나 《문학과지성》의 발간은 계간 문예지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나 비평의 조직화(에콜)를 본격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그룹의 비평가들이 대학의 교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학사적 흐름과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한국 근대문학이 언론(기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 현대문학의 비평적 흐름은 대학(교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현대소설학회의 『올해의 문체소설』 시리즈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문학상이라는 제도와 문학 앤솔로지

1994년 2월 발간된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 I』에서 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구인환 교수는 머리말에 “소설의 범람 속에서, 또한 상업적 광고에 시달리는 독자들의 성실하고 올바른 안내자(案内者)로서 이 소설선집을 내놓는다”고 밝히고 있다.³⁾ 범람이나 상업이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 90년대 초중반 한국문학, 특히 소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견될 정도로 독자들의 열풍적인 성원을 얻고 있었다.⁴⁾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문학상’이다.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문학상은 현재 조사된 것만 367개에 이르고,⁵⁾ 한국문학 단행본의 상당수는 문학상 수상작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른바 인지와 승인을 통해 문학작품이 유통되는 구조 속에 한국소설이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럴 때 한국문학의 현장에서 문학상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⁶⁾ 한국에 수백 개의 문학상이 존재한다는 말은 한국문학의 규모나 영향력과 비교해 단순히 너무 많다는 정도의 판단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 괴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는지, 그에 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문학상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결국 문학 독자와의 괴리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의 문제소설』의 기획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우선 기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3) 한국현대소설연구회 엮음,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 I』, 평민사, 1994, 6면.

4) 『"億대의富" 독서시장 「黃金알」 낳는 베스트셀러 속속』, 《경향신문》, 1994.09.16.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한 『문예연감 2024』에 근거한 것이다.

6) 한강 작가의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문학으로의 편입, 문학의 국가적 사명 등의 논의는 한국문학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20세기 한국현대문학사는 대문자 ‘문학’과 길항해온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권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의 문학적 성과는 한국문학이 대타 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지정학적 조건이기도 했다.

지난 1992년 11월 29일 이화여대에서 창립총회를 연 『한국현대소설연구회』는 ‘한국의 현대소설을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 정리하며, 연구결과
의 평가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여 한국 현대소설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술단체이다. 현대소설 분야를
전공하면서 전국의 대학에서 실제 ‘한국의 현대소설’을 강의하고 있는 교
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 연구회에서는, 그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명실
상부한 한국의 현대소설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그 해에 발표된 소
설 작품을 대상으로 선집형태의 작품집을 간행기로 하였다.

우선 그 첫 작업으로 1992년 12월부터 1993년 12월까지의 국내의 각종
월간지, 계간지, 무크지 등 문예지를 통해 발표된 한국 작가의 중·단편
소설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기간 중 각종 문학상의 본상 수상작 혹
은 후보작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를 지난 1992년 11월부터 전 회
원에게 총회 및 회보를 통해 공지하여 실질적인 작품 검토에 들어갔다.

(중략)

이렇게 선정된 16편은 다시 해설위원에게 넘겨져, 일반 독서 대중을
위한 작품 해설 중심의 해설이 쓰여졌고, 이를 작품과 함께 출판사에 의
뢰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 1』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재수록 문제로 작가
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중 중편 「달리가 시계를 녹인 이유」는 작가
자신이어 작품을 중심으로 전작 장편을 집필중이라 하여 재수록을 고사,
결국 15편 만을 수록하게 되었다.

수록 순서는 단편과 중편으로 하고, 단·중편별 작가의 문단 데뷔 역
순으로 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문학상에 별도의 문학상을 만들어 시상하
자는 의도가 아니기에 15편의 순위는 정하지 않았으며, 작품을 선정한 것
이기에 작가의 약력은 수록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국현대소설연구회』에서는 이번 작업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시행
착오를 거울 삼아,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함께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를 통해 매년 그 해의 소설을 읽어내갈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실
질적인 현대소설을 점검하는 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연구는 물론 창
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1994년부

터는 검토 대상을 각종 문예지는 물론 단행본 혹은 개인의 창작집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임을 밝혀둔다.⁷⁾

한국문학에서 오래도록 존속해온 신춘문예나 신인공모전, 추천제도 등과 앤솔로지 형태의 문학상 제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단행본을 발간한다는 점이다. 1910년을 전후해 신문이나 잡지 등 근대 매체의 ‘현상문예’로부터 시작된 문학의 등단 제도는 동인지 체제의 추천이나 투고 등을 거쳐 ‘신춘문예’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고 어느덧 100여 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⁸⁾ 현재 최고(最古)의 월간 문예지로 남아 있는 《현대문학》의 경우 1950년대부터 신인추천 제도를 실시하였고 문학을 다룬 많은 잡지들에서 신인 작가를 소개, 발굴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 공모 제도가 비평적 입지를 가지고 있던 소수의 평론가 그룹에 의해 운영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문학 교육의 현장과는 조금씩 유리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문학과지성》 동인들이 시도한 작품 ‘재수룩’ 시도였다.⁹⁾ 창간호를 내면서 동인들은 “우리는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전문 재수룩한다”고 천명하면서 “시, 소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론 전문야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여러 인문 사회과학 부분의 논문까지를 포함”한다고 쓰고 있다.¹⁰⁾ 이미 다른 매체에 발표되었던 작품들을 다시 신는 일은 당시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지만 현

7) 「우리 시대의 문체소설 I 선정경위/선정위원회」, 한국현대소설연구회 엮음, 『우리 시대의 문체소설 I』, 평민사, 1994, 517-520면.

8) 분야별로 상금을 내걸로 진행한 본격적인 신춘문예는 1925년 동아일보로 여겨지고 1988년에 창간한 한겨레신문 정도가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신춘문예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이다. 중앙일보가 2020년을 끝으로 신춘문예 제도를 폐지한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9) 이에 관해서는 노태훈, 「문학의 자율성이라는 난경—《문학과지성》과 《문학과사회》를 다시 연결하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48호, 2023.10., 83-114면 참조.

10) 김병익·김치수·김현, 「창간호를 내면서」, 《문학과지성》, 창간호, 1970년 가을호, 6면.

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익숙한 것이기도 하다. 문예지에 실린 작품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그것을 다시 출판해내는 형식은 지금 대부분의 문학 매체가 ‘문학상’의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작품에 대한 선별이나 판단의 주체로 비평가 그룹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여건상 《문학과지성》의 ‘재수록’ 제도는 오래 존속되지 못했지만 당대의 문학에 대한 비평적 개입이 이러한 형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비평가 그룹이 대학의 강단으로 진입한 이후에 전통적인 문학 커리큘럼 안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비평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제도에 편입될 이유도 없었지만 문학의 역사화와 당대 문학의 현장성은 쉽사리 결합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1970년대 계간지 시대가 열리면서 비평 그룹과 학계의 유리는 점점 심화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면 그 간극은 ‘문제적’인 것이 되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90년대 출판 호황에 기인한 것이지만 《창작과비평》은 1994년 신인평론상을 신설했고 1998년 신인소설상, 2001년 신인시인상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문학과사회》로 이름을 바꾼 ‘문지’ 그룹은 2002년부터 시, 소설, 비평 분야의 신인문학상을 시작했고 1994년 창간한 《문학동네》는 곧바로 문학동네 작가상, 소설상을 시행한 데 이어 1997년부터 각 부분의 신인상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문예지는 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를 전후해 신인 공모전을 주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사에서 발간한 『현장비평가가 뽑은 올해의 좋은 소설』(1993-2010), 현암사에서 발간한 『오늘의 소설』, 『오늘의 시』(1995) 등의 작업은 당시 발표된 작품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선정’해서 단행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학의 문학 연구자들이 당대의 문학 현장과 어떻게 조우했으며 어떤 고민들을 이어왔는지 엿볼 수 있는 것이 현대소설학회

가 펴낸 『올해의 문제소설』이다. 위에서 인용한 선정경위를 살펴보면 문학을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하며 ‘이론’을 정립하는 일을 학회 측이 소설연구의 본령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의 대학에서 실제 ‘한국의 현대소설’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가 중심이 되어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그 해에 발표된 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선집형태의 작품집을 간행”하기로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대의 문학 현장에서 비평적 개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평론가 그룹과는 선을 긋고 동시에 당대의 작품들에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천명은 이 선집 기획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후술하겠지만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과 해설하는 형식, 문학상이 아닌 문제작을 내보이겠다는 선언 등이 이 기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무분별한 문학상에 별도의 문학상을 만들어 시상하지는 의도가 아냐”라는 서술은 이 작업이 갖는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부터 시작된 『올해의 문제소설』 심사 경위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표현은 작가 혹은 작품의 사정으로 본 앤솔로지에는 해당 작품을 신지 못하게 되었다는 언급이다. 작가가 이 작품을 개작할 예정이라거나 이미 자신의 작품집에 신기로 한 경우, 혹은 다른 문학상을 수상해 별도로 소개될 예정인 경우는 피치 못하게 신지 못했다고 밝혀 놓은 것이다.¹¹⁾ 시상을 위한 문학 작품 선별이 아니라 독자에게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한데 그 심사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11) 이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2004년부터는 선정된 소설이지만 작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언급 없이 수록작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마도 일일이 미수룩의 사유를 밝히기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될 우려를 염려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따름이다.

때로는 연구실에서, 때로는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토론을 거쳐 검토된 작품들 중 회원 1인당 2편씩이 지난 1994년 12월 10일까지 연구회로 추천되었다. 이렇게 전국의 150여 회원들이 추천한 작품과는 별도로 연구회의 위촉을 받아, 숭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현대소설 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어 1년 동안 전 작품에 대하여 세미나 형식을 통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두 대학원의 지도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지난 1994년 12월 23, 24일 양일간 경기도 대성리에서 합숙하며 그간의 검토 작품과 일반 회원들이 추천한 작품을 종합하여 총 25편의 작품을 후보작으로 선정하였다.¹²⁾

이듬해 발간된 두 번째 문체소설 선집의 머리말에서 선정위원회는 “본래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했던 『우리시대의 문체소설』 발간에 예상외로 일반 독자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다”면서 2차년도의 작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1년간 발표된 문예지의 중·단편소설을 검토하되 별도의 대학원 세미나팀을 통해 지속적인 토론을 거쳤으며 이틀간 합숙의 결과로 후보작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구체적인 맥락과 현실은 문면과 다를 수 있겠으나 이 선정 과정은 당시의 어떤 문학상도 시도할 수 없는 프로세스였다. 대규모의 학술 단체가—물론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제도가 이를 추동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지만—상업적 이익과는 별개로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유사 문학상’을 시도했을 때 어떤 문학 집단도 수행하기 어려운 ‘지속가능함’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계의 단단한 구조, 그리고 학술지라는 느슨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토대가 문학 작품의 선정과 그 발간과 소개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한 사례로 『올해의 문체소설』을 꼽지 않을 수 없다.¹³⁾

12) 한국현대소설연구회, 『95 우리 시대의 문체소설』, 평민사, 1995, 5-6면.

13) 현재 한국문학에서 문예지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문학상은 ①김승옥문학상, ②김유정문학상, ③문지문학상, ④이상문학상, ⑤이효석문학상, ⑥젊은작가상, ⑦현대문학상 등이

‘문제적’이라는 수식어를 단 경위에 대해서는 발간된 단행본들을 통헤 그 구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문학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과 연관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추천하고 소개할 만한 훌륭한 작품에 대해 상찬의 수식을 쓰지 않고 ‘문제작’¹⁴⁾이라는 다의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은 이 기획의 성격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특히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문제작은 명작이나 걸작과는 다른 위상을 가진다. 주지하듯 한 작가의 이력에서 또는 어떤 시대의 관점에서 문제작은 반드시 뛰어난 작품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를 당대의 문학 작품에 적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엄정함’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의 문제소설’ 선정위원회는 첫 번째 앤솔로지에서 아예 작가의 약력을 삭제해 두고 있다. 오로지 이름만이 기재된 작품을 독자는 접하게 되고 작가의 명성이나 이력과는 별개로 작품의 ‘문제적’ 측면만을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95년에 발간된 두 번째 앤솔로지에서는 본래 ‘단편→중편’, ‘작가의 문단 데뷔 역순’으로 실렸던 순서마저 ‘가나다 순’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는 가급적 작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다. 이 문학상들은 등단 연도나 대상 작품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1년간 문예지에 발표된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삼는다. 흥미로운 것은 2010년대 이후로 장기간에 걸쳐 일군의 평론가들이 작품을 꾸준히 따라 읽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학상을 수여하는 방식이 흔해졌는데 ‘올해의 문제소설’은 그 전범이라 여겨도 무방할 듯하다.

14) 문제작 혹은 문제작품이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한국 문단에서도 종종 쓰이던 표현으로 확인된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앤솔로지의 형태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는 『한국전후문제시집』(1961)으로 추정된다. 신구문화사에서 편찬한 『세계전후문학전집』의 여덟 번째 기획으로 1961년 10월에 출간된 『한국전후문제시집』은 1945년부터 1960년 12월 말까지 등단한 시인 30명의 작품과 각각의 시작노트, 그리고 세 편의 평문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작가’는 “한 세대의 흐름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의 기호나 친소가 개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분에게」, 박인환 외,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2-3면.

15) 하지만 다소 독자에게 불친절하다고 여겨졌는지 작가의 약력 소개는 작품 말미에 덧붙이기 시작했다.

3. 『올해의 문제소설』 기획 의도와 선정의 방식

‘올해의 문제소설’은 1994년 첫 앤솔로지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을 시작으로 1995년까지 평민사를 통해 발간되었고 1996년부터 연도와 ‘올해의 문제소설’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신원문화사가 2001년까지, 이후 현재까지 푸른사상사가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발간 때부터 ‘각 대학의 현대문학 전공 교수가 선정했다는 수식어가 늘 붙어 있었고 현재는 “현대문학 교수 350명이 뽑은”으로 고정되어 있다. 기실 학회의 정회원 숫자를 대략적으로 의미하는 이 수식은 현재는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학회 전체의 참여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학회의 기획위원회를 통한 선정위원단 혹은 세미나팀의 활동으로 이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 초창기 이 기획의 진행과 선정 과정은 이러한 수식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열성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되고 대학의 강단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점은 현재에도 유효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회의 작업이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차적으로 누적 되어 실질적인 한국 현대 소설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독서 대중들의 의견을 정중히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한국의 현대 대표 소설집을 만드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한다.¹⁶⁾

이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문학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 앤솔로지가 “한국 현대 소설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랐다는 점이다. 매해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들 중 문제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한 권의 단행본으로 만드는 작업은 그 자체로 문학적 아카이브이다. ‘올해의 문제소설’ 기획에서 작가의 이름이나 약력보

16) 한국현대소설연구회 엮음, 『95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 평민사, 1995, 7면.

다 더 강조되는 것은 작품의 ‘초출’이다. 현재까지도 이 앤솔로지의 머리 말에는 작품들의 목록이 게재지면을 병기하여 나열되어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이 작품들이 하나의 문학적 ‘자료’라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는 대중 문학 독자에 대한 감각이다. 이 부분은 앤솔로지가 여러 해를 거쳐 진행되어 오며 조금씩 변화한 부분이기도 하다. 초창기 선정위원들은 일반 대중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절하고 평이한 ‘해설’을 내세웠었다. 그것은 발간 초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독자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당대의 문학 비평이 다소 대중 독자와는 거리를 둔 채 문학 내부의 담론에 골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었을 것이다. 강단에서 마주한 문학의 독자들, 교육 현장에서 읽히는 텍스트는 당대의 비평적 논의와는 사뭇 달랐을 것으로 추측되고 아마도 학회 측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¹⁷⁾ 그러나 또한 동시에 아카데미의 문학 해설은 비평적 접근과는 달라야 했다.

매년 같은 취지에서 “올해의 문제소설”을 발간해 왔으나, 올해는 전문적인 소설 연구자들로 구성된 우리 학회의 특성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같은 문제소설이라 해도 이 작품들을 소설이론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는 글을 해설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문제작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한층 깊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¹⁸⁾

지속적으로 평이한 해설을 내세우던 학회의 기조는 2008년의 선정위원

17) 선정위원회는 대학의 ‘한국 현대소설 강독’ 강의에 활용하기 위해 당초 기획된 것이라 밝히기도 있고 해설은 “현대소설 이해의 개론서와 같은 수준”, 다시 말해 “대학생들의 현대소설 이해와 일반 독서 대중의 작품 이해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서술한 바 있다.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머리말」, 『2001 올해의 문제소설』, 신원문화사, 2001, 5-7면.

18)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책을 내며」, 『2008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08, 4면.

회에서 그 취지가 조금 변화하게 된다. 비슷한 성격의 앤솔로지들이 조금씩 생겨나던 시기에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대학의 ‘교원’이 해설하는 앤솔로지는 그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기법, 문체, 인물, 주제, 사건, 시점, 심리묘사 등과 같은 소설의 핵심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작품론은 올해의 문제작들을 더 깊이, 더 새롭게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한다”¹⁹⁾는 서술은 위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목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성은 해를 거듭해 오면서 합치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학 현장과 문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필진들”²⁰⁾의 해설을 실었다고 서술하는 점이나 전문적인 식견과 이론적 해석을 시도하는 동시에 독서 대중에 친화적인 설명을 염두에 둔다는 언급 등이 그것이다. 당초 상당 부분 비평적 해석에 거리를 두고 강단 연구자들의 시선에 중심을 두어 왔던 학회 선정위원회 측의 의지는 앤솔로지가 지속되면서 일종의 ‘타협’을 선택하게 된다.

현재 한국 문학관에는 지난 한 해의 소설적 성과들을 묶어내는 앤솔로지가 여럿 있다. 그런 터에 전국의 대학에서 소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매년 또 굳이 또 다른 앤솔로지를 묶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반쪽 앤솔러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앤솔로지가 필요하다는 것. 오래전부터 발간되어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의 앤솔러지들은 대부분은 수상 작품집 형식의 앤솔러지들이다. 그 앤솔러지들은 한국문학의 새로운 경향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읽어내는 데는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아쉽게도 기존의 수상 작가들을 아예 후보 단계에서부터 제외하는 까닭에 지난 한 해의 소설적 성과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앤솔러지들이 점점 더

19)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머리말」, 『2010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08, 7면.

20)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머리말」, 『2015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5, 7면.

‘반쪽짜리 앤솔러지’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점점 더 ‘반쪽’이 되어가는 앤솔러지가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국소설의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앤솔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한국현대소설학회의 ‘올해의 문제소설’ 시리즈는 이 때문에 탄생했고 이 때문에 이어져오고 있다. 우리가 매년 우리만의 앤솔러지를 묶는 두 번째 이유는 한국현대소설을 횡적으로만이 아니라 종적으로도 읽는 앤솔러지가 필요하다는 고집 때문이다. 몇 년의 문학사를 놓고 보면 어떤 작품은 문제적이지만 넓은 스펙트럼에서 보면 그 작품은 이전 작품의 단순한 반복인 경우가 있다. 한국현대소설학회에서 묶어내는 ‘올해의 문제소설’ 시리즈는 이러한 필요성과 필연성 속에 탄생했고 이후 오로지 소설 내적이고 소설사적인 시각에서 작품을 선별하고 있다. 덕분에 한국현대소설학회에서 매년 펴내는 ‘올해의 문제소설’ 시리즈는 그 어떤 앤솔러지보다 명실상부하고 객관적인 컬렉션으로 자리해온 것이 사실이다.²¹⁾

다소 길게 인용한 2017년 발간 ‘올해의 문제소설’ 머리말은 그간 기계적으로 반복되어 오던 서문과는 결이 다르다. 이미 20년 이상을 발간해온 학회의 앤솔러지가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해 동안 발표된 소설들 중 의미 있는 작품을 묶되 그것이 ‘문학상’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최초의 방향성은 문학상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구조적 한계 때문임을 선정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문학상의 수상작 혹은 후보작으로 선정된 경우 이후 동일한 앤솔러지에서 암묵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제외되는 관행이 ‘반쪽’ 앤솔러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학사적인 시선을 견지해 ‘종적’ 독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별한다는 점은 이 앤솔러지의 기획이 분명하게 “소설사적인 시각”임을 밝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즉 여타의 문학상이나 출판사, 문학단체 주관의 앤솔러지와는 달리 ‘올해의 문제

21)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책머리에』, 『2017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7, 4-5면.

소설'이 소설을 연구하는 학술집단에 의해 발간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특징적이라는 것을 여전히 중심에 둔다는 것이다.

‘올해의 문제소설’은 학회 회원들의 개별 추천과 학회 임원진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1차 선별을 완료하고 이후 최종 선정 회의를 통해 문제작을 선정한 뒤 개별 작가의 수록 여부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선정작을 확정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그 기조는 여러 번의 작은 부침이 있긴 했으나 큰 틀에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올해의 문제소설’ 선정은 예심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아마 여타의 문학상이나 앤솔러지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작가들이 눈에 띄리라 생각한다. 『올해의 문제소설』은 제도권의 문학상 심사와 달리 한국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연구자들이 긴 호흡으로 작품을 읽고 논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학에서 감지되는 새로운 목소리와 움직임에 포착하고 작가의 후광이나 이력을 떠나 문학적 성취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²²⁾

그것은 한국문학의 ‘새로움’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독서 대중의 문학적 접근이 용이해진 지금 문학 앤솔러지는 자신만의 색깔이나 경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학적 이념이나 테제, 진영이나 에코를 넘어 ‘좋은’ 문학 작품을 선별하는 일에 대부분의 비평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고 이것은 한국 소설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된다. ‘올해의 문제소설’은 문학 현장의 여러 복잡한 맥락에서 다소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학적 흐름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2)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책머리에』, 『2023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23, 5면.

4. 나가며: 의미와 제언

본고는 한국현대소설학회의 앤솔로지 시리즈 『올해의 문제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현대문학 연구와 비평의 구조적 긴장을 검토하려 했다. 한국현대소설학회가 1990년대 초부터 매년 문예지에 발표된 중·단편소설을 선별해 『올해의 문제소설』을 발간해 온 기획의 의미를 밝히면서 이를 강단 비평과 문학 현장 사이의 오래된 갈등, 나아가 정전 형성과 계보 의식에 대한 대안적 실천으로 읽어보았다.

한국현대소설학회는 1992년 창립 후, 학술지 《현대소설연구》 발간(1993)과 함께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 이어 『올해의 문제소설』 시리즈를 출간하며 학술단체가 직접 동시대 소설 앤솔로지를 꾸준히 기획·선정해 왔다. 이 앤솔로지는 가장 ‘우수한’ 작품이 아니라 가장 ‘문제적인’ 작품을 고른다는 원칙 아래, 특정 문학상 수상집과 달리 다양한 작가·작품의 공존과 동시대 문제의식의 가시화를 중시하는 선정 방식을 취해 왔다. 『올해의 문제소설』은 대학과 학회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인 생산 구조를 확보하면서도 강단 비평이 지닌 계보·정전 중심 시각을 일정 부분 비켜 나가려는 실천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비평 내부의 긴장과 갈등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사례로 제시할 수 있겠다.

본고는 첫째, 『올해의 문제소설』의 발간 경위와 연보, 선정 방식과 참여 인력, 발간사·해설의 담론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 시리즈의 제도사·편집사를 일별하려 했으며 둘째, “강단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된 대학 중심 문학 담론과 동시대 작품 생산 현장(문예지, 출판 현장) 사이에서 형성된 긴장을 이 앤솔로지가 어떻게 중개·조율 혹은 재배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문학적 계보와 정전 형성에 대한 강박을 상대화하면서 장기적·지속적 선집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중간 정리’와 ‘대안적 정전’을 구성하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이 기획의 지속 가능성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한국현대소설학회가 발간하는 『올해의 문제소설』은 여타의 앤솔로지와는 또 다른 성격을 하나 갖고 있다. 그것은 학회의 임원진이 교체되면서 이 선정 기획과 선정을 담당하는 주체와 방식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체로는 기왕의 형식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하지만 선정위원회의 작품 선별 방식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사실이다. 문학상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문학적 ‘선별’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폐해를 낳게 되는 것은 선정하는 주체의 매너리즘과 고정되어버린 비평적 태도에 기인한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올해의 문제소설’은 매년 새롭게 그 시선을 갱신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성을 가진 학술단체와 대학이라는 제도적 기반 아래에서 이 앤솔로지는 다른 기획 단행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견고함을 토대로 상당 부분 자유로운 문학적 선택을 누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관행적으로 또 편의적으로 이 앤솔로지가 발간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다. 초창기 선정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그 선정 과정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동일한 방식에 작품만 바뀌는 인상을 주기도 했고 점점 선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생략되기도 했다. 특정 시기의 작품들을 선별하여 정리하는 일은 그것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최근 발간되는 ‘올해의 문제소설’ 시리즈가 그러한 ‘객관적’ 과정에 대한 서술을 줄이고 비평적 진단과 작품 리스트 제시로 갈음되는 것은 비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앤솔로지의 주요한 방향성 중 하나가 문학적 아카이브, 즉 ‘자료’로서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열다섯 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하고 개별 필자가 짧은 해설을 덧붙이는 앤솔로지의 형식에 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본래 이 앤솔로지의 기획도 그러했거니와 현재도 다른 앤솔로지들과 구분되는 지점은

‘작가’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작품 자체에 주목하겠다는 의미는 작가에 대한 선입견이나 작가의 영향력을 고려한 작품의 선정 등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지 작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가에 대한 소개나 작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해설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 개별 작품에 대한 필자들의 글을 조금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재차 언급하지만 문학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에서 당대 소설 작품을 검토해 앤솔로지 형태의 단행본을 발간하는 것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30년 이상의 역사를 쌓아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학적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문학 연구자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문학적 ‘계보’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를테면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선집/전집’류의 발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을 상기해 볼 수 있다. 많은 출판사들이 당대의 작가들까지 포함하여 앤솔로지 형태의 단행본을 앞다투어 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전’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올해의 문제소설’이 갖는 위치는 특별하다. 이 앤솔로지가 문학적 정전을 선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님은 ‘문제적’이라는 수식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매해 새로운 작품들로 앤솔로지가 채워진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본고의 부록으로 제시된 ‘올해의 문제소설’ 선정작 리스트는 작품을 정전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나 작가, 독자의 변화에 따라 어떤 작품들이 의미 있는 논의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리스트를 정리하면서 어떤 작가가 몇 회나 작품을 수록했는지, 어떤 지면의 작품들이 주로 선정되었는지, 선정된 작가/작품의 성향은 어떠한지를 굳이 분석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의 문제소설’은 다양한 비평적 논의를 위한 하나의 ‘자료’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앤솔로지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부록에 함께 제시)

2. 기타 자료 및 논문, 단행본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문예연감 2024』

《문학과지성》 창간호, 1970년 가을

박인환 외,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1

노태훈, 「문학의 자율성이라는 난경—《문학과지성》과 《문학과사회》를 다시 연결하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48호, 2023.10., 83-114면.

이시윤, 『하버마스 스캔들—화려한 실패의 지식사회학』, 파이돈, 2022

〈부록〉: 『올해의 문제소설』 연혁 및 선정 작품

- 한국현대소설연구회 엮음,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 I』, 평민사, 1994
 한국현대소설연구회 엮음, 『95 우리 시대의 문제소설』, 평민사, 1995
 한국현대소설연구회 엮음, 『96 올해의 문제소설』, 신원문화사, 1996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97 올해의 문제소설』, 신원문화사, 1997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98 올해의 문제소설』, 신원문화사, 1998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99 올해의 문제소설』, 신원문화사, 1999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00 올해의 문제소설』, 신원문화사, 2000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01 올해의 문제소설』, 신원문화사, 2001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02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02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03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03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04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04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05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05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06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06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07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07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08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08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09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09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10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0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11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1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12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2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13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3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14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4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15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5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16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6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17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7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18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8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19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19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20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20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21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21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22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22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23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23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24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24
 한국현대소설학회 엮음, 『2025 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사, 2025

구분	작가	작품	계재지
우리 시대의 문체 소설 I (1994)	공지영	인간에 대한 예의	《실천문학》, 1993. 여름
	구효서	자공, 소설에 먹히다	《계간문예》, 1993. 봄
	김소진	처용단장	《문예중앙》, 1993. 봄
	김익건	절대음을 찾아서	《월간문학》, 1993. 4
	김인숙	칼날과 사랑	《창작과비평》, 1993. 여름
	박양호	꾼들의 세상	《문학사상》, 1993. 1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상상》, 1993. 가을
	서정인	광상	《현대문학》, 1993. 8
	송기원	늙은 창녀의 노래	《문예중앙》, 1993. 여름
	송하춘	청량리역	《현대문학》, 1993. 1
	조성기	달리가 시계를 녹인 이유	《세계의문학》, 1993. 봄
	조총희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계간문예》, 1993. 여름
	주인석	한국문학의 현대계—1992년 겨울	《비평의시대》, 1993. 1
	하창수	수선화를 꺾다	《문예중앙》, 1993. 봄
	홍상화	어머니 마음	《한국문학》, 1993. 5-6
홍성원	짚맛으로 남은 사람들	《작가세계》, 1993. 가을	
우리 시대의 문체 소설 (1995)	김소진	높이 있는 마을	《문예중앙》, 1994. 가을
	김승희	호랑이 꺾꼭지	《문학사상》, 1994. 11
	김영근	구멍 II	《월간문학》, 1994. 8
	박성원	유서	《문학과사회》, 1994. 가을
	박양호	우리들의 남은 목숨	《소설과사상》, 1994. 여름
	송기원	사람의 향기	《창작과비평》, 1994. 여름
	양문길	다섯 사나이가 계단을 오른다	《문예중앙》, 1994. 봄
	유금호	속눈썹 한 개 뽑고나서	《월간문학》, 1994. 8
	윤대녕	사막의 거리, 바다의 거리	《상상》, 1994. 봄
	이미지	나의 고백을 듣는 당신	《문학사상》, 1994. 3
	이승우	미궁에 대한 추측	《문학사상》, 1994. 5
	임혜기	아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소설과사상》, 1994. 여름
	정 찬	산다화	《문학사상》, 1994. 8
	최 학	소설가의 일	《현대문학》, 1994. 11
한승원	새끼무당	《문예중앙》, 1994. 봄	
올해의	구효서	카사블랑카여 다시 한 번	《작가세계》, 1995. 봄

문제 소설 (1996)	김석희	하루나기	《동서문학》, 1995. 가을
	김소진	원색생물학습도감	《문학동네》, 1995. 가을
	김인숙	먼길	《실천문학》, 1995. 봄
	박덕규	20세기 비 오는 날	《현대문학》, 1995. 4
	박상우	집시의 시간	《문학사상》, 1995. 3
	송하춘	갈퀴 나무꾼들	《소설과사상》, 1995. 가을
	오정희	구부러진 길 저쪽	《문학과사회》, 1995. 가을
	윤후명	등대는 어디에 있는가	《문예중앙》, 1995. 가을
	이혜경	귀로	《세계의문학》, 1995. 가을
	채희운	공룡의 꿈	《문학사상》, 1995. 9
	하창수	이야기의 유령	《소설과사상》, 1995. 여름
올해의 문제 소설 (1997)	김경옥	변기 위의 돌고래	《문예중앙》, 1996. 여름
	김소진	길	《문학사상》, 1996. 3
	김인숙	붕우리, 어디쯤...	《한국문학》, 1996. 봄
	박명희	마음의 가위질	《현대문학》, 1996. 2
	서하진	홍길동	《현대문학》, 1996. 5
	안 광	매직 카드	《현대문학》, 1996. 8
	양귀자	금지된 말	《현대문학》, 1996. 8
	우승제	안녕이라 말하지 마 나는, 먹고 싶다...	《문예중앙》, 1996. 여름
	윤정모	볼록 거울	《현대문학》, 1996. 8
	이용준	달의 뒤편으로 가는 자전거 여행	《문학과사회》, 1996. 여름
	조경란	당신의 옆구리	《상상》, 1996. 여름
최시한	섬에서 지낸 여름	《문학과사회》, 1996. 가을	
한정희	유리집	《작가세계》, 1995. 겨울	
올해의 문제 소설 (1998)	구자명	빨	《작가세계》, 1997. 가을
	김탁환	치욕	《상상》, 1997. 가을
	박완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문학동네》, 1997. 겨울
	윤대녕	장미창	《세계의문학》, 1997. 겨울
	윤영수	옛날 이야기 IV	《문학사상》, 1997. 12
	이규정	트자에 '르' 달고	《한국소설》, 1997. 가을
	이승우	샘샘	《현대문학》, 1997. 10
이윤기	숨은 그림 찾기 1	《세계의문학》, 1997. 여름	

	전경린	바닷가 마지막 집	《창작과비평》, 1997. 여름
	정 찬	적멸	《문학과사회》, 1997. 가을
	최수철	매미	《문학사상》, 1997. 10
올해의 문제 소설 (1999)	구효서	도라니꽃 누님	
	김한수	빈 수레 끄는 언덕	
	민경현	인멸(湮滅)	
	박범신	내 기타는 죄가 많아요, 어머니	
	박완서	꽃잎 속의 가시	
	송하춘	쥐똥나무꽃길	
	심상대	망월	
	유익서	황조(黃鳥)의 노래	
	윤영수	당신의 저녁 시간	
	현길언	섬을 찾는 길에	
올해의 문제 소설 (2000)	공선옥	홀로어멈	《창작과비평》, 1999. 가을
	구인환	기벌포(伎伐浦)의 전설	《조선문학》, 1999. 8
	구효서	포천에는 시지프스가 산다	《리벨름》, 1999. 봄
	권현숙	열린 문	《세계의문학》, 1999. 여름
	김만옥	그 모퉁이의 한 그루 나무	《창작과비평》, 1999. 여름
	김이소	외출	《세계의문학》, 1999. 봄
	박범신	그해 가장 길었던 하루—들길 1	《창작과비평》, 1999. 가을
	신장현	과자 먹는 시간	《문예중앙》, 1999. 봄
	윤홍길	묘지 근처—때와 곳 2	《작가세계》, 1999. 봄
	이인성	무덤가 열일곱 살—칠들 무렵 2	《현대문학》, 1999. 6
	이인화	초원을 걷는 남자	《현대문학》, 1999. 2
	하창수	서른 개의 문(門)을 지나온 사람	《문학사상》, 1999. 9
	한 강	해질녘에 개들은 어떤 기분일까	《창작과비평》, 1999. 여름
	올해의 문제 소설 (2001)	김인숙	칼에 찢린 자국
김종광		모내기 블루스	《창작과비평》, 2000. 가을
김채원		푸른 미로	《문학사상》, 2000. 2
문순태		느티나무 아래서	《문예중앙》, 2000. 가을
박성원		델러웨이의 창(窓)	《문학동네》, 2000. 가을
서하진		사심(邪心)	《문학과사회》, 2000. 가을
송하춘		비벌리힐스 서울 사이트	《리벨름》, 2000. 가을

	신장현	세상 밖으로 난 다리	《문학사상》, 2000. 1
	윤대녕	흑백 텔레비전 꺼짐	《문학동네》, 2000. 봄
	이수경	당신의 기억색	《세계의문학》, 2000. 가을
	조경란	망원경	《문학과사회》, 2000. 봄
	최수철	아우라 · 1	《문학사상》, 2000. 7
올해의 문제 소설 (2002)	강석경	관	《현대문학》, 2001. 6
	공지영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21세기문학》, 2000. 겨울
	구효서	세상은 그저 밤 아니면 낮이고	《문학사상》, 2001. 3
	김하기	미귀	《실천문학》, 2001. 봄
	박정규	에코르체 혹은 보이지 않는 남자	《세계의문학》, 2001. 가을
	서하진	비밀	《현대문학》, 2001. 2
	송하춘	그해 겨울을 우리는 이렇게 보냈다	《문학사상》, 2001. 2
	윤후명	나비의 전설	《작가세계》, 2001. 가을
	이승우	검은 나무	《작가세계》, 2000. 겨울
	이혜경	일식	《문학동네》, 2001. 봄
	조경란	동시에	《동서문학》, 2001. 여름
	천운영	눈보라콘	《창작과비평》, 2001. 여름
올해의 문제 소설 (2003)	강영숙	검은 밤	《현대문학》, 2001. 11
	김경옥	거미의 계약	《문학사상》, 2002. 7
	김종광	낙서 문학사 · 창시자편	《문예중앙》, 2002. 여름
	김향숙	감이 익을 무렵	《실천문학》, 2002. 가을
	이청준	들꽃 씨앗 하나	《21세기문학》, 2002. 여름
	이화경	외국어	《세계의문학》, 2002. 여름
	전경린	낙원빌라	《문학사상》, 2001. 12
	전상국	플라나리아	《동서문학》, 2002. 봄
	정 찬	희고 둥근 달	《문학동네》, 2002. 봄
	정미경	호텔 유료, 1203	《21세기문학》, 2002. 가을
	하창수	추상화	《한국문학》, 2001. 겨울
	한승원	그러나 다 그러는 것만은 아니었다	《작가세계》, 2001. 겨울
올해의 문제 소설 (2004)	권지예	꽃게무덤	《현대문학》, 2003. 5
	김인숙	그 여자의 자서전	《창작과비평》, 2003. 여름
	김종광	김씨네 푸닥거리 약사	《작가세계》, 2003. 봄

	김 훈	화장	《문학동네》, 2003. 여름
	박정규	안녕, 먼 곳의 친구들이여	《현대문학》, 2003. 10
	박정애	불을 찾아서	《문학사상》, 2003. 3
	백민석	믿거나말거나박물지 둘	《작가세계》, 2003. 가을
	윤 효	눈이 어둠에 익을 때	《문학사상》, 2003. 2
	이승우	사령	《문학동네》, 2003. 여름
	정미경	성스러운 봄	《문학사상》, 2003. 4
	천운영	명랑	《창작과비평》, 2003. 봄
	최일남	석류	《현대문학》, 2003. 1
올해의 문제 소설 (2005)	김경옥	나가사키여 안녕	《문학과사회》, 2003. 겨울
	김연수	이등박문을, 쓰지 못하다	《문학동네》, 2004. 봄
	김재영	코끼리	《창작과비평》, 2004. 가을
	박민규	카스테라	《문학동네》, 2003. 겨울
	박상우	화성	《세계의문학》, 2004. 봄
	서하진	농담	《문학관》, 2004. 여름
	송경아	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	《파라21》, 2003. 겨울
	이승우	사해	《한국문학》, 2004. 봄
	이현수	늑	《작가세계》, 2004. 가을
	정미경	무화과나무 아래	《현대문학》, 2004. 10
	조경란	잘 자요, 엄마	《문학사상》, 2003. 12
	천운영	그림자 상자	《문예중앙》, 2004. 봄
올해의 문제 소설 (2006)	김원일	오마니별	《창작과비평》, 2005. 겨울
	김인숙	어느 찬란한 오후	《현대문학》, 2005. 7
	김중혁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작가세계》, 2005. 가을
	박민규	코리언 스텐더즈	《문학수첩》, 2005. 봄
	박정규	한나절의 수수께끼	《현대문학》, 2005. 5
	손홍규	이무기 사냥꾼	《문학동네》, 2005. 여름
	유금호	그 강변, 야생 키니네꽃	《계간소설가》, 2005. 여름
	이웅준	약혼	《현대문학》, 2005. 10
	이화경	상란전	《문학과경계》, 2004. 겨울
	정이현	1979년생	《문학과사회》, 2005. 가을
	조선희	파란꽃	《실천문학》, 2004. 겨울
	최수철	창자 없이 살아가기	《문학사상》, 2005. 10

올해의 문제 소설 (2007)	김 슝	트럭	《문학사상》, 2006. 2
	김인숙	조동욱, 파비안느	《창작과비평》, 2006. 봄
	김중혁	유리방패	《창작과비평》, 2006. 여름
	윤영수	광고맨 강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문학사상》, 2006. 8
	이신조	엘리스, 이상한 섬에 가다	《문학동네》, 2006. 가을
	이혜경	한갓되이 풀잎만	《세계의문학》, 2006. 가을
	정미경	내 아들의 연인	《작가세계》, 2006. 여름
	정지아	순정	《실천문학》, 2005. 겨울
	천운영	소년 J의 말끔한 허벅지	《문예중앙》, 2006. 여름
	한 강	원손	《문학수첩》, 2006. 가을
	한유주	죽음에 이르는 병	《현대문학》, 2005. 11
	황정은	문	《문학동네》, 2006. 가을
올해의 문제 소설 (2008)	김경옥	나가사키 내 사랑	
	김남일	오생의 부활	
	김애란	칼자국	
	김연수	달로 간 코미디언	
	김이은	가슴 커지는 여자 이야기	
	김재영	꽃가마배	
	박민규	아치	
	송하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윤대녕	풀밭 위의 점심	
	정미경	들소	
	정 찬	바비 인형	
	천운영	내가 데려다줄게	
올해의 문제 소설 (2009)	권 리	해파리	
	권여선	당신은 손에 잡힐 듯	
	김남일	오생, 아무도 가지 않을 길을 가다 —오자와전	
	김이은	이건 사랑 노래가 아니야	
	김태용	포주 이야기	
	남 한	갈레테아의 나라	
	박민규	별	
서성란	파프리카		

	손홍규	도플갱어	
	송하춘	자전거	
	정지아	봄날 오후, 과부 셋	
	최일남	스노브 스노브	
올해의 문제 소설 (2010)	권지예	BED	《문학수첩》, 2009. 여름
	김경옥	연애의 여왕	《작가세계》, 2009. 봄
	김애란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	《문학과사회》, 2009. 봄
	김종성	춤추는 몬스터	《리토피아》, 2009. 봄
	김중혁	3개의 식탁, 3개의 담배	《창작과비평》, 2009. 봄
	박완서	빨간색이 바이러스	《문학동네》, 2009. 가을
	백가흠	그리고 소문은 단련된다	《현대문학》, 2008. 10
	손홍규	소설이 오셨다	《한국문학》, 2008. 겨울
	이언호	아보카도의 씨	《한국소설》, 2008. 12
	조해진	목요일에 만나요	《문학사상》, 2009. 9
	최수철	피노키오들	《작가세계》, 2008. 겨울
최제훈	셜록홈즈의 숨겨진 사건	《현대문학》, 2009. 2	
올해의 문제 소설 (2011)	김경옥	소년은 늙지 않는다	《한국문학》, 2010. 여름
	김형주	베틱	《작가세계》, 2010. 봄
	박민규	루디	《창작과비평》, 2010. 봄
	손홍규	내가 잠든 사이	《문학사상》, 2010. 5
	엄승숙	라이게이션을 장착하라	《현대문학》, 2009. 10
	윤고은	Q	《한국문학》, 2010. 여름
	이청해	홍진에 문힌 분내	《문장웹진》, 2010. 1
	이 흥	나의 메인스타디움	《창작과비평》, 2010. 여름
	장마리	선셋 블루스	《문학사상》, 2010. 5
	최수철	페스트에 걸린 남자	《현대문학》, 2010. 1
	편혜영	저녁의 구애	《작가세계》, 2009. 겨울
한 강	훈자	《세계의문학》, 2009. 겨울	
올해의 문제 소설 (2012)	구효서	바소 콘티누오	《현대문학》, 2011. 2
	김연수	인구가 나다	《현대문학》, 2011. 2
	김종은	버틸 수 있겠어?	《문학사상》, 2011. 9
	김중혁	바질	《현대문학》, 2010. 12
	박형서	맥락의 유령	《현대문학》, 2011. 1

	백가흠	그래서	《현대문학》, 2011. 1
	염승숙	레인스틱	《작가세계》, 2010. 가을
	윤고은	요리사의 손톱	《문학동네》, 2010. 겨울
	이기호	저기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간다	《현대문학》, 2011. 1
	조 현	은하수를 건너—클라투행성통신 I	《현대문학》, 2011. 9
	최제훈	미루의 초상화	《문학동네》, 2011. 여름
	홍영진	자살경제학	《문학사상》, 2011. 2
올해의 문체 소설 (2013)	권 리	폭식광대	《한국문학》, 2011. 겨울
	김경옥	인생은 아름다워	《문학사상》, 2011. 11
	김 솔	소설 작법	《문학과사회》, 2012. 가을
	김연수	주썹뚜디피니를 듣던 터널의 밤	《세계의문학》, 2012. 봄
	박민규	아...르무...리...오	《세계의문학》, 2012. 봄
	서유미	세 개의 시선	《현대문학》, 2012. 6
	서준환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	《현대문학》, 2012. 9
	이기호	이정	《창작과비평》, 2012. 여름
	이지영	23/멜랑꼴리	《현대문학》, 2011. 11
	정용준	유령	《현대문학》, 2012. 6
	조해진	홍의 부고	《창작과비평》, 2012. 가을
	최수철	택시	《문학사상》, 2012. 4
	한유주	불가능한 동화	《문학사상》, 2012. 3
올해의 문체 소설 (2014)	권여선	봄밤	《문학과사회》, 2013. 여름
	김경옥	승강기	《현대문학》, 2012. 12
	김엄지	미래를 도모하는 방식 가운데	《창작과비평》, 2013. 가을
	박성원	몸	《현대문학》, 2013. 4
	박형서	무한의 흰 벽	《문학과사회》, 2013. 가을
	송하춘	마적을 꿈꾸다—김유정 평설	《현대문학》, 2013. 2
	윤고은	월리를 찾아라	《창작과비평》, 2012. 겨울
	이기호	나정만 씨의 살짝 아래로 굽은 봄	《창작과비평》, 2012. 겨울
	임철우	세상의 모든 저녁	《문학과사회》, 2012. 겨울
	정미경	목 놓아 우네	《현대문학》, 2012. 12
	조해진	빛의 호위	《한국문학》, 2013. 여름
최인석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현대문학》, 2013. 9	
올해의	권여선	카메라	《현대문학》, 2013. 12

문제 소설 (2015)	백민석	비와 사무라이	《세계의문학》, 2014. 여름
	안보윤	나선의 방향	《문학사상》, 2013. 12
	이장욱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창작과비평》, 2013. 겨울
	임철우	흔적	《문예중앙》, 2014. 봄
	정용준	개들	《문학사상》, 2014. 5
	정이현	영영, 여름	《문학동네》, 2014. 여름
	조해진	번역의 시작	《현대문학》, 2014. 7
	최수철	거제, 포로들의 춤	《문학과사회》, 2014. 여름
	최은미	근린	《창작과비평》, 2014. 봄
	최은영	한지와 영주	《작가세계》, 2014. 여름
	하성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한국문학》, 2014. 봄
올해의 문제 소설 (2016)	김금희	보통의 시절	《작가세계》, 2015. 여름
	김연수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	《문학동네》, 2014. 겨울
	김의경	물건들	《세계의문학》, 2014. 겨울
	김혜진	어비	《21세기문학》, 2015. 가을
	백민석	개나리 산울타리	《21세기문학》, 2015. 가을
	백수린	중국인 할머니	《작가세계》, 2015. 봄
	이갑수	T.O.P	《문학과사회》, 2015. 봄
	이은희	선긋기	《세계일보》, 2015. 1. 1
	임철우	연대기, 괴물	《실천문학》, 2015. 봄
	조해진	사물과의 작별	《문학과사회》, 2014. 겨울
	천희란	창백한 무영의 정원	《현대문학》, 2015. 6
최은영	미카엘라	《실천문학》, 2014. 겨울	
올해의 문제 소설 (2017)	박민정	행복의 과학	《문예중앙》, 2016. 가을
	백수린	고요한 사건	《악스트》, 2016. 7/8
	윤고은	된장이 된	《악스트》, 2016. 1/2
	윤이형	이웃의 선한 사람	《21세기문학》, 2015. 겨울
	이장욱	낙천성 연습	《한국문학》, 2016. 봄
	정미경	새벽까지 희미하게	《창작과비평》, 2016. 여름
	정용준	선릉 산책	《문학과사회》, 2015. 겨울
	천희란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문예중앙》, 2016. 가을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자음과모음》, 2016. 봄
	최은영	썩짜오, 썩짜오	《문장웹진》, 2016. 4

	하명희	불편한 온도	《황해문화》, 2015. 겨울	
	홍명진	마순희	《작가들》, 2016. 여름	
올해의 문제 소설 (2018)	권여선	손톱	《문학과사회》, 2017. 봄	
	김금희	오직 한 사람의 차지	《문학과사회》, 2017. 봄	
	김봉곤	여름, 스피드	《악스트》, 2017. 7/8	
	김연수	저녁이면 마냥 걸었다	《문학3》, 2017. 5	
	박민정	바비의 분위기	《문학과사회》, 2017. 여름	
	박형서	외톨이	《문학동네》, 2017. 봄	
	안보윤	여진	《자음과모음》, 2017. 여름	
	임성순	몰 : mall : 沒	《릿터》, 2017. 4/5	
	임솔아	병원	《문학3》, 2017. 1	
	임 현	그들의 이해관계	《문장웹진》, 2017. 3	
	최은영	그 여름	《21세기문학》, 2016. 겨울	
	최진영	막차	《문예중앙》, 2017. 여름	
	올해의 문제 소설 (2019)	권여선	희박한 마음	《자음과모음》, 2018. 여름
		김남숙	제수	《악스트》, 2018. 5/6
김봉곤		시절과 기분	《21세기문학》, 2018. 봄	
박민정		모르그 디오라마	《릿터》, 2018. 2/3	
박상영		채희	《자음과모음》, 2018. 가을	
윤이형		마흔셋	《문학동네》, 2018. 여름	
이상우		장다름의 집 안에서	《문학과사회》, 2018. 여름	
이주란		넌 쉽게 말했지만	《21세기문학》, 2018. 가을	
장류진		일의 기쁨과 슬픔	《창작과비평》, 2018. 가을	
정영수		우리들	《21세기문학》, 2018. 가을	
정지돈		Light from Anywhere 빛은 어디에서나 온다	《창작과비평》, 2018. 여름	
최진영	어느 날(feat. 돌맹이)	《웹진 비유》, 2018. 1		
올해의 문제 소설 (2020)	강화길	오몰자의 출현	《릿터》, 2018. 12/1	
	김금희	기괴의 탄생	《자음과모음》, 2019. 여름	
	김사과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	《자음과모음》, 2019. 여름	
	박민정	신세이다이 가옥	《문학동네》, 2019. 가을	
	박상영	동경 너머 하와이	《문학동네》, 2019. 가을	
	백수린	아카시아 숲, 첫 입맞춤	《문학동네》, 2019. 가을	

	손보미	밤이 지나면	《문학동네》, 2019. 여름
	윤성희	남은 기억	《현대문학》, 2019. 7
	윤이형	버킷	《문학과사회》, 2019. 가을
	정영수	내일의 연인들	《자음과모음》, 2019. 여름
	최은미	보내는 이	《자음과모음》, 2019. 봄
	최은영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릿터》, 2019. 2/3
올해의 문제 소설 (2021)	김 숨	철의 사랑	《문장웹진》, 2020. 6
	김의경	시디팩토리	《실천문학》, 2020. 여름
	김지연	굴 드라이브	《현대문학》, 2020. 1
	김초엽	오래된 협약	《문학동네》, 2020. 여름
	백수린	흰 눈과 개	《현대문학》, 2020. 5
	서이제	그룹사운드 전집에서 삭제된 곡	《웹진 비유》, 2020. 4
	서장원	망원	《현대문학》, 2020. 4
	이유리	치즈 달과 비스코티	《현대문학》, 2020. 4
	임 현	거의 하나였던 두 세계	《창작과비평》, 2020. 가을
	장류진	편편 페스티벌	《문학동네》, 2019. 겨울
	전하영	남쪽에서	《현대문학》, 2019. 12
최진영	유진	《문학동네》, 2020. 봄	
올해의 문제 소설 (2022)	김멜라	저녁놀	《문학과사회》, 2021. 가을
	김병운	11시부터 1시까지의 대구	《작가들》, 2021. 여름
	박서련	그 소설	《문학동네》, 2021. 여름
	박솔피	믿음의 개는 시간을 저버리지 않으며	《문학과사회》, 2021. 여름
	서이제	두개골의 안과 밤	《자음과모음》, 2021. 여름
	위수정	풍경과 사랑	《자음과모음》, 2021. 봄
	이서수	미조의 시대	《악스트》, 2021. 3/4
	이선진	부나, 나	《자음과모음》, 2021. 여름
	이주란	위해	《문장웹진》, 2021. 6
	이주혜	그 고양이 이름의 이름은 길다	《자음과모음》, 2021. 겨울
	최은영	답신	《현대문학》, 2021. 6
한정현	쿄쿄와 쿄지	《문학과사회》, 2021. 봄	
올해의 문제 소설 (2023)	김기태	전조등	《현대문학》, 2022. 4
	김멜라	지하철은 왜 셋별인가	《악스트》, 2022. 9/10
	김병운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자음과모음》, 2022. 겨울

	김 본	슬픔은 자라지 않는다	《자음과모음》, 2022. 겨울
	김애란	흙 파티	《에픽》, 2022. 4/5/6
	김이숲	관객	《자음과모음》, 2022. 여름
	김채원	서울 오아시스	《문학과사회》, 2022. 가을
	성혜령	버섯 농장	《에픽》, 2022. 7/8/9
	이서수	젊은 근회의 행진	《악스트》, 2022. 1/2
	이희주	천사와 황새	《릿터》, 2022. 6/7
	정영수	일몰을 걷는 일	《릿터》, 2022. 4/5
	현호정	연필 샌드위치	《자음과모음》, 2022. 가을
올해의 문제 소설 (2024)	권여선	안반	《창작과비평》, 2023. 겨울
	기준영	신세계에서	《문학동네》, 2023. 봄
	김기태	롤링 선더 러브	《문학과사회》, 2023. 봄
	김지연	반려빛	《문학과사회》, 2023. 봄
	박민정	전교생의 사랑	《문학과사회》, 2023. 여름
	박솔피	투오브어스	《창작과비평》, 2023. 봄
	성해나	혼모노	《자음과모음》, 2023. 가을
	이미상	자갈 선생의 상담일지	《릿터》, 2023. 2/3
	이주혜	이소 중입니다	《현대문학》, 2023. 5
	전하영	숙희가 만든 실험영화	《릿터》, 2023. 6/7
	정영수	미래의 조각	《문학동네》, 2023. 가을
	최미래	항아리를 머리에 쓴 여인	《문장웹진》, 2023. 11
올해의 문제 소설 (2025)	김병운	만나고 나서 하는 생각	《창작과비평》, 2024. 가을
	서고운	여름이 없는 나라	《문학들》, 2024. 여름
	서장원	리틀 프라이드	《자음과모음》, 2024. 봄
	성해나	스무드	《현대문학》, 2024. 10
	예소연	작은 벌	《쑤》, 2024. 하반기
	이미상	옮겨붙은 소망	《창작과비평》, 2024. 여름
	이서수	AKA 신숙자	《자음과모음》, 2024. 여름
	이주혜	팔호 밖은 안녕	《문학과사회》, 2024. 가을
	이준아	청의 자리	《문장웹진》, 2024. 10
	이희주	최애의 아이	《문학동네》, 2024. 가을
	최미래	과자 집을 지나쳐	《자음과모음》, 2024. 겨울

<Abstract>

Between Academia and Field, Research and Criticism

— Focusing on *The Problematic Novel of the Year*

Roh, Taehoon

THE SOCIETY OF KOREAN FICTION was founded in November 1992 and began publishing its journal,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in December 1993, followed in February of the next year by the anthology *Our Era's Problematic Novel*. Under the title *The Problematic Novel of the Year*, this series has since continued to be published every year by reviewing Korean short stories that appeared in literary magazines and selecting works deemed worthy of recommendation and introduction. Such a project undertaken by an academic association within the field of contemporary literature is not only difficult to find parallels for, but also constitutes a highly intriguing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literary histor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in detail the publication background,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the anthology *The Problematic Novel of the Year*, and through this to explore the subtle yet longstanding tensions embedded in research and criticism on modern Korean literature. The formation of literary discourse led by university-affiliated researchers, commonly referred to as “academic criticism,” has been a point of controversy since the mid-twentieth century, when modern Korean literature was being established as a distinct academic discipline. This is partly attributable to

the disciplinary nature of modern literature, which cannot avoid dealing in some form with the works and writers produced in the contemporary literary field. Grounded in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a stable academic association and the university system, *The Problematic Novel of the Year* has been able to maintain a level of stability and solidity unmatched by other literary anthologies, while continually exercising a relatively free literary selection. As a result, it has managed to carry on a meaningful long-term project that escapes the compulsion toward literary genealogy or the formation of a fixed canon that literary scholarship cannot help but be conscious of. By offering a concrete analysis of the significance of *The Problematic Novel of the Year*, this article ultimately seeks to suggest ways in which this endeavor might continue to develop and sustain itself in the future.

Key words: THE SOCIETY OF KOREAN FICTION, *The Problematic Novel of the Year*, Literary Studies, Literary Field, Critic, Academy, University

투 고 일: 2025년 11월 16일

심 사 일: 2025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22일

수정마감일: 2025년 12월 28일